



홍건희



심동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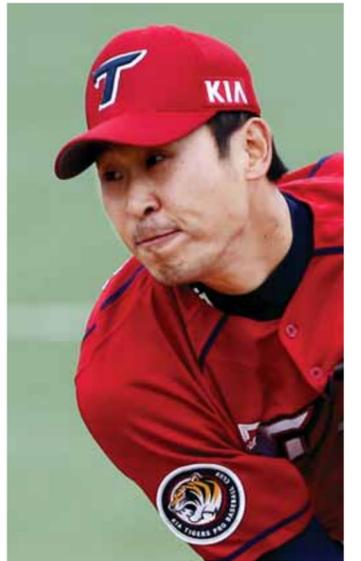


프로야구 중간순위 (4월 13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차	연속
1 삼성	13	9	4	0	0.0	1패
2 SK	12	8	4	0	0.5	1승
3 NC	11	7	4	0	1.0	1패
4 롯데	12	7	5	0	1.5	1승
4 KIA	12	7	5	0	1.5	1승
6 두산	12	6	6	0	2.5	1패
7 LG	13	6	7	0	3.0	1승
8 한화	12	5	7	0	3.5	1패
9 넥센	12	4	8	0	4.5	2패
10 KT	13	2	11	0	7.0	2승



최영필



윤석민

‘와르르하는 잇어라’ ... KIA 불펜 강해졌다

최영필·심동섭·홍건희에 윤석민 합류로 짜임새 갖춰

최근 12경기 선발 평균자책점 4.59... 불펜 3.00 선전

주중 LG·주말 넥센전... 근육통 최희섭 합류 타선 기대

예상을 뒤집은 KIA 불펜의 힘. 이제는 선발진의 도약이다. 지난주 ‘난적’ NC, 삼성과의 일전을 치른 KIA는 지난 12일 4방의 홈런으로 간신히 5연패에서 탈출했다. 승보다 훨씬 많은 패를 기록한 위기의 시간이었지만 불펜의 힘을 확인한 기회의 시간이기도 했다.

올 시즌에도 KIA의 아킬레스건은 불펜이었다. 여전한 마무리 부재 속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연달아 난타를 당하며 고민이 쌓였다. 그러나 윤석민의 합류로 불펜이 틀을 갖춘 뒤 예상과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 12경기를 치른 현재 선발진의 평균자책점은 4.59, 불펜진의 평균자책점은 3.00을 보이고 있다.

스티븐-임기준-양현종-험버-문경찬-스티븐으로 이어진 지난 6연전에도 선발진이 8.35의 평균자책점을 냈지만 불펜진은 3.22로 뒷문을 지키면서 연패의 충격을 최소화했다. 선발진이 무너지면 불펜까지 함께 무너지던 모습과는 다르다.

최고참 최영필이 불펜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다. 최영필은 단 하나의 사사구도 허용하지 않은 과감한 피칭으로 6.2이닝 6피안타 3탈삼진 ‘0’의 행진을 하고 있다. 마무리 후보였던 심동섭도 12일 삼성전 위기를 막으며 승리를 지키는 등 부재 힘이 불었다. 6.1이닝을 소화한 심동섭은 2피안타 5사구 8탈삼진 1실점, 1.42의 평균자책점을 찍고 있다.

박준표와 홍건희의 활약도 반갑다. 시즌 전 마운드의 다크호스로 주목을 받았던 박준표는 공격

적인 피칭으로 마운드 운용에 솜통을 튀워주고 있다. 7.1이닝 8피안타 4사구 1탈삼진, 평균자책점 1.23이 박준표의 기록. 1군 엔트리에 깜짝 합류를 한 홍건희도 패전조에서 씩씩하게 이닝을 책임지며 불펜의 과부하를 막고 있다.

연승기간 특급 마무리로 활약했던 윤석민이 삼성과의 경기에서 끝내기 안타에 이어 3점 홈런까지 얻어맞으면서 평균자책점이 7.50까지 뛰어오른 게 ‘육에 티’지만 불펜이 잘 맞물려 돌아가면서 희망을 남겼다.

임기준을 시작으로 로테이션이 돌아갈 선발진의 이닝만 더해지면 더없이 좋은 마운드의 흐름이다. 12경기에서 선발진은 66.2이닝을, 불펜진은 42닝을 소화했다. 양현종이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세 경기에서 가장 많은 19이닝을 던졌다.

그러나 두 외국인 투수 험버와 스티븐의 이닝이 부족하다. 세 경기에서 스티븐은 16.1이닝, 험버는 15이닝을 맡으며 초반 기싸움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선발진의 이닝이 더해지면 불펜도 더 탄탄하게 돌아갈 수 있다.

김주찬이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주중 LG와의 원정경기, 주말 넥센과의 홈경기 타선은 이상무다. 부상으로 김원섭이 엔트리에 말소됐지만 김다원이 공·수에서 업그레이드된 활약을 하며 외야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원섭이 빠진 자리에 발 빠른 고영우로 스피드를 보완했고, 허벅지 근육통으로 쉬었던 최희섭도 휴식일이었던 13일 훈련을 하며 컨디션을 조율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男 야구·女 핸드볼 ‘운명의 한·일전’

강정호, 터졌다 첫 안타

ML 7타석만에... 밀워키전 7회 중전안타

오는 7월3일부터 열리는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광주U대회) 단체종목의 대진표가 나왔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무난한 시험지를 받아들였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과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13일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단체종목 참가국 51개국 대표단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단체종목 조 추첨 행사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 한국은 일본과 함께 농구(남여), 축구(남여), 배구(남여), 수구(남), 핸드볼(남여), 야구(남) 등 모든 단체종목에 출전한다. 북한은 단체경기 중 여자축구와 여자핸드볼에 출전할 예정이다.

이날 조 추첨에서 주최국 한국은 A조 시드를 받아 종목별 최강 전력의 팀과 대진은 피했다.

조 추첨 결과, 가장 주목되는 경기는 남자야구와 여자핸드볼의 한-일전이다.

남자야구에서 한국은 일단 한 숨을 돌렸다. 세계 최강인 미국과 같은 조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 중국, 프랑스와 A조를 이뤘다. 일본과의 자존심 대결이 관심사지만 나란히 본선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B조는 미국과 대만, 멕시코가 묶이면서 혼전이 예상된다. 특히, 차기 개최국인 대만은 2017U대회에 야구를 선택종목으로 택한만큼 야구에 힘을 쏟고 있어 관심거리다.

여자핸드볼에서 또 한 번의 한일전이 펼쳐진다. A조에 속한 한국은 일본, 중국, 우크라이나와 같은 조에 편성됐다. 한국은 객관적인 전력이 우세해 본선 진출을 넘어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남자 핸드볼은 유럽이 강세여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핸드볼은 U대회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다. 광주U대회가 선택종목으로 택한 것이다.

남자농구는 D조가 죽음의 조다. 세계 최강 세르비아와 브라질, 미국, 터키가 한데 묶여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특히, 남자농구는 6개국 중 1-2위만 토너

U대회 단체종목 조추첨...韓, 전종목·北, 女 축구·핸드볼 출전

‘죽음의 조’는 男 농구...세계 최강 세르비아·브라질·미국·터키 몰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은 13일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회의실에서 광주U대회 단체종목 조 추첨을 하고 있다.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먼트에 진출하기 때문에 더욱 치열해졌다. 여자농구는 B조에 강팀이 몰렸다. 미국, 체코, 중국이 본선 진출을 위해 치열한 몸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여자축구는 C조가 불거리다. 브라질, 북한, 중국이 한 조로 묶이면서 죽음의 조가 됐다.

반면, A조인 한국은 강팀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한결 여유롭다. 여자축구에서 남북 대결을 기대하려면 북한이 C조에서 2위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한

다. 남자축구는 D조에 강팀이 몰려있어 A조에 편성된 한국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다.

광주U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단체종목 조 추첨 행사가 완료됨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경기 시설과 경기운영 분야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광주U대회가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한국프로야구 출신 야수 최조로 메이저리그에서 안타를 쳐낸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정말로 원하던 첫 안타였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강정호는 13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밀러파크에서 계속된 밀워키 브루어스와 방문경기에서 7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 4-2로 앞선 7회초 선두타자로 세 번째 타석에 나서 중전 안타를 쳐내며 메이저리그 첫 안타를 신고했다.

강정호의 안타는 첫 두 타석에 쳐낸 공이 밀워키의 3루수 아라미스 라미레스의 호수비에 걸리지만 않았더라면 좀 더 이른 시기에 나올 수 있었다. MLB닷컴도 강정호가 라미레스에게 안타 2개를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첫 두 타구 모두 안타성이었다.

4타수 1안타를 기록한 강정호는 이날 경기 피츠버그의 10-2 승리로 끝난 뒤 “첫 안타를 쳐내서 기쁘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강정호는 “첫 번째 안타를 간절히 원했다. 좀 더 일찍 쳤어야 했다”며 기쁨과 함께 아쉬움도 드러냈다.

강정호가 선발 출전 두 경기 만에, 그리고 7번째 타석 만에 메이저리그 첫 안타를 때려내자 클린트 허들 감독도 반색했다.

허들 감독은 “강정호는 한국과는 무척 다른 곳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 공의 속도도, 변화구의 회전도, 투수들이 타자를 상대하는 법도 모두 다르다”며 “강정호에게는 단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다. 나는 그가 우리 팀에 보탬이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등 통증’ 추신수 사구 2개

‘추수 트레이너’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등 통증을 털어내고 대타로 교체 출장해 사구 2개를 얻어냈다.

추신수는 13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서 경기 후반 교체 출장해 1타수 무안타에 몸에 맞는 볼과 볼넷으로 두 차례 1루 베이스를 밟았다.

추신수는 2-4로 끌려가던 8회말 텍사스가 집중력을 발휘해 동점을 만들자 이어진 2사 1, 2루

에서 9번 델리노 드실즈의 타석 때 대타로 타석에 들어섰다.

추신수는 휴스턴의 네 번째 투수 채드 쿠얼스를 상대로 볼 카운트 1볼-2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몸에 맞는 볼을 얻어냈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몸에 맞는 볼로 이어진 2사만루에서 레오니스 마틴이 쿠얼스의 초구를 공략했다가 유격수 앞 땅볼로 물러나면서 역전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